

강진군, 관광·유통 스마트해진다

4차산업혁명 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

지역민 소득 높이고 일자리 창출...인구 5만 달성 기회로

강진군이 관광·유통 분야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한다.
 강진군은 지난 12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4차산업혁명 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보고회에는 용역 수행사와 실과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용역 추진방향과 기본 발전구상에 대한 참석자 간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강진군은 민선8기 '5555 전략'으로 ▲연간 관광객 500만 명 유치 ▲신규 일자리 5000개 창출 ▲1

인당 연소득 5000만원 실현 ▲강진인구 5만명 시대 달성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 기술을 관광, 유통, 마케팅 등 군정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군은 지역 관광명소를 콘텐츠로 영상을 만들어 SNS를 활용해 널리 알리고, 우수 농특산물의 온라인 판매를 확대해 디지털 시장을 다른 시군보다 먼저 선점할 계획이다.
 또 민원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앱을 개발해

활용함으로써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군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을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1·2·3차 산업을 아우르는 6차산업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하면 24배(4×6)효과를 볼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군은 이날 보고회를 시작으로 광주전남연구원 등에서 황성웅 책임연구원 등 박사급 연구원 7명이 참여해 내년 3월까지 4차산업혁명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면 시공간을 초월하는 관계인구가 늘어나고 관광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며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4차산업혁명 기술을 누가 먼저, 어떻게 행정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는 문을 열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



가을꽃축제가 열리고 있는 장성 황룡강 일원. <장성군 제공>

장성 황룡강서 꽃길만 걷게 해줄게~

15~16일 걷기대회 참가비 무료

가을꽃이 울긋불긋 물든 장성 황룡강에서 '가을꽃축제 꽃길 걷기대회'가 열린다.
 오는 15일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 주무대인 옛 공설운동장 부지에서 열리는 이번 걷기대회는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를 원하는 이들은 행사 당일 오전 10시까지 행사장을 찾으면 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날 걷기대회는 댄싱공연팀 이카루스와 바이올리니스트 강명진의 전자 바이올린 연주 식전 공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본격적인 걷기대회는 10시 30분부터 시작된다. 걷기코스는 옛 공설운동장에서 출발해 용작교와 엘로우시티 스타디움, 힐링허브정원, 황미르랜드를 돌아 다시 출발지점으로 돌아오는 5km

거리다. 완주까지는 약 1시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성군은 아름다운 가을꽃을 만끽할 수 있도록 코스마다 그늘막 등 쉼터를 설치하고, 구간별로 행사 진행요원과 구급차, 관용차량을 배치해 안전사고에 대비할 방침이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사랑하는 가족, 친지와 함께 황룡강 꽃길을 거닐며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고, 건강도 챙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15일에는 마담 바흐, 유연수, 김정훈, 심신 등이 출연하는 달빛 콘서트가 펼쳐진다. 오후 8시에는 올해 가을꽃축제의 마지막 불꽃놀이가 있을 예정이다. 장성 황룡강 가을꽃축제는 걷기대회 다음날인 16일까지 열린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한반도 닮은 영산강 느리지' 나주 성장동력으로

시, 오늘 학술대회 개최

나주시가 한반도 지형을 빼닮은 '영산강 느리지'를 미래 관광성장 동력으로 키운다. 느리지는 물길이 흐르면서 모래가 쌓여 길게 늘어진 모양을 표현한 순우리말이다.
 나주시는 역사·문화·생태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정책 모색을 위해 14일 오전 10시 영강동 어울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국립목포대학교 호남문화콘텐츠연구소와 '영산강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의 유산과 느리지 유역의 명승적 가치'를 주제로 열리는 학술대회는 영산강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생태 자원을 활용한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 정책 수립을 위한 첫 걸음이다.
 나주시는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학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영산강을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낼 밑그림을 그리는다는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당선인 시절을 비롯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줄곧 영산강을 지역 발전의 핵심 자원으로 강조해 왔다.
 이날 학술대회는 '영산강 문화 자연유산의 현황과 전망', '영산강 느리지 일원 명승적 가치'를 주제로 오전과 오후 총 2부에 걸쳐 개최된다.
 1부에선 학계 전문가들이 '강 문화·자연유산 현



한반도 지형을 빼닮은 영산강 느리지 곡강.

황과 전망'에 대해 잇달아 주제 발표를 한다. 2부에선 정철환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의 '느리지 일원 지형·지질적 가치'를 비롯해, 홍신기 한국섬재단 이사장의 '느리지 일원 식물·생태적 가치' 등 영산강 느리지 일원의 명승적 가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룬다.
 발표 이후에는 강봉룡 목포대 호남문화콘텐츠연

구소장을 좌장으로 발표자, 학계 관계자, 시민이 참여하는 자율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진다.
 나주시는 이번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영산강이 보유한 자연·문화유산의 역사적 가치 재해석과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에 착수한다. 또 시민 아카데미와 학술대회 개최, 명승 지정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손영철 기자 yacson@kwangju.co.kr



함평군, 함평쌀 판로 확대에 나서

그린랩스 등과 업무협약

함평군이 쌀 판로 확대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함평군은 지난 12일 함평군청 소회의실에서 (주)그린랩스, (주)나비골팜, 함평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통합 RPC)과 4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를 비롯해 김진영 (주)그린랩스 센터장, 조민준 (주)나비골

팜 대표이사, 서현용 함평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함평군과 (주)나비골팜, 함평군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우수한 품질의 함평쌀을 생산·공급하고, (주)그린랩스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4개 기관·단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평쌀 판로 확대와 소비 촉진이 라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어려운 민원 도와드립니다" 화순군, 민원 전문상담제 호응

화순군 민원 전문상담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화순군 민원 전문상담제는 복잡하고 다양해진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터 운영 중이다.
 민원 전문상담제는 행정업무 근무 10년 이상의

일반직 퇴직공무원이 '민원 전문상담사'로 변신해 군청 행복민원관과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민원인을 응대한다.
 민원 전문상담사는 여러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복합민원 상담, 담당자 연결, 서류작성이 어려운 민원서류 작성, 각종 상담과 민원 해소방안 모색 등

군민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민원 처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민원 전문상담제 운영으로 고객맞춤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화순군 민원실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